【재경조찬】2016.7.18 월요일

1. **거시, 데이터**
2. **선완훙위안(申万宏源)증권 : 현단계 외부환경은 여전히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남해 중재, 프랑스 테러습격, 터키 쿠테타 등 블랙 스완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글로벌 벤처캐피탈의 투자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자본유출의 압박이 심화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예금준비금율을 하향조정하거나 심지어 예금대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하이퉁(海通)증권 : 경기 하락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 모든 선진국들의 경제가 고속성장하는 발전도상국에서 저성장율의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겪었다시피, 경기 하락은 경제구조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임. 경제구조의 개선 여부는 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임.**
4. **팡정증권(方正證券) 런저핑(任澤平) : 거시경제가 'L'형의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율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통화정책의 진일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음.**
5. **광저우일보(廣州日報) : 최근 몇년간 중앙기업의 개혁이 빈번히 이뤄지면서 중앙기업의 합병에 대한 시장의 예측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음. 공급측 개혁을 위한 중앙기업의 합병과 구조정이 하반기 자본시장의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석탄, 비철금속 등 분야의 상장 중앙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6. **양광망(cnr.cn) : 통계국의 고위 관계자는 그가 발표한 문장에서 상반기 전국 주민소득이 GDP 성장율과 비슷한 속도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러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 철강, 석탄 등 업종의 과잉생산력 해소에 따른 해당 업종 종업원의 급여에 초래될 수 있는 영향 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7. **경제관찰보 :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는 않고 있지만 뉴라운드 개혁의 상당히 중요한 일환인 중앙기업의 저효율·무효율 자산 처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012년 이후 중앙기업은 재산권거래시장을 통해 1,080억위안에 달하는 저효율·무효율 자산을 처리했다고 샤오야칭(肖亞慶) 국유자산관리위 주임이 일전에 발표하였음.**
8. **중국신문사 : 지난 17일, "중국거시경제포럼" 거시경제 월간 데이터 분석회 개최. 6월의 제반 지표는 중국의 거시경제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비교적 큰 하락 압박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거시적 정책 면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 적당히 완화된 통화정책" 조합을 실시할 것을 제안.**
9. **부동산**
10. **신화넷(xinhuanet.com) : 충칭(重慶)시 국토부동산관리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상반기 충칭(重慶)시의 부동산 재고 해소 실적은 455.65만 평방미터임. 충칭(重慶)시가 올해 2월에 출범한 <충칭(重慶)시 공급측구조개혁방안>에서는 2~3년 내에 1,000만 평방미터의 재고 해소를 과제로 제시.**
11. **시장**
12. **상무부(商務部) : 제26회 중미투자협정 협상이 11일-17일 개최됨. 양 당사자는 협정문서 상의 보류 이슈에 관한 협상에서 적극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으며 지난달 중순에 교환했던 네커티브리스트를 둘러싸고 심도 있는 협상 전개. 호혜·윈윈의 고수준 투자협정 달성을 목적으로 협상 가속화 추진 예정.**
13. **제일재경(yicai.com) : 올해 상반기, 충칭(重慶)시의 지역내총생산액은 8,000.82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전국 성장율을 3.9포인트 상회하였음. 충칭(重慶)은 연속 10개 분기에 걸쳐 전국 1위의 성장율을 달성하였으며 발전의 질과 효익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실물 제조업이 고속 발전을 거듭함과 동시에 충칭(重慶)의 부동산 시장 또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14. **은율망(yinhang.com) : 1~6월, 새로 증가한 불량 P2P 플랫폼은 총 695개로 전년동기대비 47.87%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7-12월 대비 24.1% 증가하였음. 불량 P2P 플랫폼 중 연락 두절, 도주, 경찰 개입 등의 악성 문제가 발생한 플랫폼이 62.9%에 달함. 업계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하반기에 악성 문제 발생 플랫폼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15. **월스트리트저널 : 올해 상반기 중국 민영기업의 투자가 밀물처럼 미국에 밀려듬. 6월까지 중국기업의 투자가 29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2014년에 기록했던 전(全)년도투자기록을 타파하였음. 이러한 분출식 투자는 여러가지 특징이 있으며 거의 모든 자본이 신축 시설이 아닌 인수합병으로 흘러듬.**
16. **신화통신(新華社) :** 지난주 **중국 강철현물종합지수는 주간 3.01% 상승한 94.73포인트로 거래 마감.** 7월 선보름, 현물 가격에 대한 선물의 촉진 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남. 단, 현단계 중국 국내의 강철 수요공급 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아니하여 단기적으로 강철 시장은 요동·정돈 추세를 유지할 것임.
17. **중국증권망(cs.com.cn) :** 지능형 단말기가 폭넓게 보급됨에 따라 APP의 사용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용자의 소비는 데이터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음성 서비스를 보조적인 것으로 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차이나텔레콤은 100% 데이터화 된 요금 정책을 출범할 예정임.** 즉 음성, 메세지를 데이터 흐름량으로 환산하여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통신 요금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편리를 도모하는 요금 정책임. 이는 업계 내 첫번째 시도임.
18. **증시**
19.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 :**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5일 **상하이·선전 증시의 유통주 시가총액은 37.75조위안으로 주간 1.99% 상승.** 양 증시의 평균주가는 10.34위안으로 주간 1.66% 상승. 상하이 증시의 상장회사 수는 1,109개이고 평균 주가 수익율은 15.12이며, 선전 증시의 상장회사 수는 1,786개이고 평균 주가 수익율은 41.63임.
20. **궈진증권(國金證券) ：** 현재 조정 리스크가 존재하며,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으나 상승폭과 지속시간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함.** 정상적인 상황하에서 3,100-3,239까지 반등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잠재적인 조정폭과 그 이후 3,100를 다시 공략하려는 추세의 강도에 달려있음**.
21. **국제**
22. **시장조사기관EPFR ：** 지난주 11일~13일 **미국의 주식·펀드 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지난해 3분기 말 이후 최고치 기록.** 캐시플로는 글로벌 경제 악화로 미 연방준비제도가 2분기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음을 보여줌.
23. **지난주 금요일 발틱해 건화물 운임지수(BDI)는 0.95% 상승한 745포인트 기록,** 주간 5.97% 상승
24. **외환**
25. **지난주 금요일, 중국 위안화(CNY) 대 미국 달러화의 환율은 0.1% 상승한 6.6804에 거래를 마감하였으며 주간 0.12% 상승. 위안화 기준환율은 6.6805를 기록했고, 주간 0.07 상승.**
26. **도이치은행 :** 올해 하반기 **유로/달러는 계속 하락세를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 그 원인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필연적으로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유럽중앙은행 또한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인데 이는 유로존의 자금의 지속적인 유출 및 경상계정잉여의 약화를 자극할 것이기 때문임.
27. **석유**
28. **지난주 금요일,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의 8월 선물 가격은 0.59% 상승한 배럴당 45.95달러를 기록했고, 주간 1.3% 상승.** **ICE 브런트 원유의 9월 선물 가격은 0.51% 상승한 배럴당 47.61달러를 기록했고, 주간 1.8% 상승. 근일 메릴린치는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위에 있어 브런트 원유 가격은 2016년 말에 최고로 배럴당 55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고 2017년 브런트 원유 가격 평균치는 배럴당 61달러 좌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